

■ 편집후기(編輯後記)

- ◆ 본 학회 학술지 『日本語學研究』는 2017년부터 2년에 1회, 일본어학의 분야별 최근 2년간 연구 현황과 전망에 관한 논문을 〈특별기획〉으로 게재하고 있다. 이번 59집은 그 두 번 째로, 귀중한 전망 논문을 집필해 주신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국내외 일본어학 연구자들의 연구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옥고를 투고해 주신 한국일본어학회 회원님들과 편집과 출판에 수고해 주신 편집위원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李)
- ◆ 이번 59집은 대학교 내외 사정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학기말의 어수선함과 학기초의 분주함을 이어가며 진행되었고, 전망 논문과 일반 논문이 동시에 모집되어 실무 담당 간사가 아니어도 “다망하다”는 표현이 실감나는 나날이었다. 바쁜신 중에 논문을 집필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편집위원회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60집은 제가 담당합니다. 감바리마스!^^ (幸)
- ◆ 이번 59집은 전망 논문과 일반 논문이 같이 발행되는 특별한 논문집이니 만큼 논문 집필과 편집에 많은 수고와 시간이 필요했다. 옥고를 투고해 주신 투고자 분들과 편집과 출판에 수고해 주신 편집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새 학기 모두 힘차게 시작하시고, 60집에도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金)
- ◆ 이번 59집은 일본어학의 분야별 연구 현황과 전망에 관한 논문을 〈특별기획〉으로 게재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수고가 그 만큼 많이 들지만 다른 연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논문이 되었기를 바란다. 편집실무 업무를 수행하면서 1권의 학술지가 발간되기까지 많은 노력과 신경이 쓰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鄭)